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Coping Styl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Relapse Risk in Alcoholics

Yun Hee Choi[#], Hae Sook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60 Honamdae-gil, Gwangsan-gu,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anger rumination and anger-coping style affect the warning symptoms of alcohol relapse in alcoholic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nger and develop customized treatment plans for alcoholis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110 alcoholics patients that were treated in the alcohol hospita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bootstrapping was also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nger rumination, anger coping style, and the warning symptoms of alcohol relapse. An anger-coping styl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rumination and the risk of alcohol relapse.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further research to prevent the risk of alcohol relapse.

Key words: alcoholics, anger rumination, anger-coping style, warning of relapse, mediating effect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알코올 사용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성인의 경우 12.2%(남성 18.1%, 여성 6.4%)로 여타의 정신질환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Lee & Lee, 2019). 특히,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 환자의 50%~60% 가량이 3개월 이내에 재발한다고 한다(Brown, *et. al.*, 1995). 국내 연구에서도 1년 이상 단주를 한 알코올 사용 환자는 13%에 불과할 정도로(Kim, 1999)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은 정신건강 영역의 커다란 고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알코올 사용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알코올 사용 및 재발위험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 The 1st author: Yun Hee Choi, Tel. +82-43-380-3810, Fax. +82-43-380-3808, e-mail. clara20082@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Hae Sook Kim, Tel. +82-43-940-5477, Fax. +82-43-940-5217, e-mail. 2015154@honam.ac.kr

요하겠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알코올 사용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지 체계의 결핍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 에탄올 중독과 뇌 손상 같은 생물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중 심리적 요인은 치료를 통해 중재가 가능하므로 많은 연구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는 알코올에 대한 태도와 신념, 분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성격특성, 동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 Son, 2013).

이 중 분노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Moon, *et. al.*, 1999; Cooper, *et. al.*, 1992).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로 가벼운 짜증부터 화, 더 나아가서는 격노까지 포함하는 감정 상태이다(Moon, *et. al.*, 1999). 연구자들에 의하면 분노는 알코올 사용을 계속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Cooper, *et. al.*, 1992; Oetting, *et. al.*, 1989). 즉, 분노는 심한 경우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중독 등의 정신 건강 문제와 폭력적인 행동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2013; Reeve, *et. al.*, 2013). 특히, 알코올과 관련하여 분노는 알코올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알코올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장기간동안 지속되는 감정 중 하나로 밝혀져 있다. 실제로 국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an, *et. al.*(1996)의 이전 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충동을 증가시키는 내적인 자극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분노가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분노를 감정으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이를 촉발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즉, 분노를 감정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들의 관점과 달리 분노를 인지적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를 유발시킨 상황이나 사건들을 반복해서 곱씹는 인지적 특성인 분노 반추가 분노라는 감정을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2009). 이러한 접근은 분노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중 하나로 개념화하여 접근하고 분노 감정의 특성을 연구해 온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반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반추를 인지적 인 개념으로 정리하며,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Cribb, *et. al.*, 2006; Giorgio, *et. al.*, 2010; Nolen-Hoeksema, *et. al.*, 2008). 결과적으로 반추는 인간이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반추하는데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능동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반추가 정서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지각되는 경우 알코올 섭취나 지연행동 같은 회피행동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였다고 보고한 Nolen-Hoeksema & Harrell(2002)의 연구에서는 반추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기분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를 더 많이 하였다. 즉, 반추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보다는 생각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시도이지만 생각에 몰두해 있다 보면 다른 활동을 피하게 되면서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10).

Giorgio, *et. al.*(2010)은 반추와 경험적 회피 및 우울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횡단 연구들에서 반추와 경험적 회피, 우울 증상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때 경험적 회피는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회피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내적인 사건, 즉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추가 행동적 회피 기능을 하든 인지적 회피 기능을 하든 결국에는 정서적 회피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Nolen-Hoeksema, *et. al.*, 2002). 다만, 반추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분노 반추는 분노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분노 감정 및 상황을 피하게 만드는 등 분노 표현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분노반추는 분노 감정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적절한 대처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보통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발전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음주 동기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내적 긴장감의 증가로 알려져 있다(Finney & Moos, 1991).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은 스트레스 그 자체,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된 우울, 불안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해결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보고한다. 더욱이 이들은 술이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상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oe & Oh 2006; Brown, 1985; Brown, *et. al.*, 1980).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는 회피행동의 일종으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즉,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기 위해 음주를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피하도록 만들어 결국에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중시키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감정 자체보다는 회피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노 반추가 재발 경고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실제 문화권과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 정서로 간주되는 분노 감정보다는 인지적인 특성을 강하게 띄는 분노 반추를 연구 주제로 삼고, 분노 반추와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로 구분된다(Spielberger, *et. al.*, 1988). 분노억제는 화는 나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며, 분노를 유발한 대상을 피하거나 화가 난 이유를 말하거나 직접 표현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 사고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분노반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다. 분노표출은 자신의 분노경험을 언어적, 신체적 반응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신체적, 언어적 수단을 포함해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특성을 보인다.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모두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으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상태를 자각 및 감독하면서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이다.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과 알코올 문제간 상관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히, Moon, *et. al.*(1999)에 의하면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같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이 음주량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분노반추와 분노표현 방식간의 관계를 직접 규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분노를 반추하는 특성이 알코올 재발 경고증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분노반추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중 그 작동 기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분노억제 방식이 분노 반추 및 알코올 재발 경고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코올중독 환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포함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의 관계를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라는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3. 연구대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14명이 이에 응하였으며, 이 중 공란이 너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11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95명(86.4%), 여자는 15명(13.6%)이었으며, 나이는 27세에서 77세 사이로 평균 51세(SD=11.17)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알코올사용 환자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자유롭게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안내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기입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측정치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내용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나 대상자가 서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두로 한번 더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직접 사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경우에도 동의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설문지와 동의서는 분리하여 수거하는 등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4. 측정도구

1)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K)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Lee(2009)가 Denson, *et. al.* (2006)의 전위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를 번안한 후 이를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된 공격성 척도(DA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세 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분노반추(10문항), 둘째, 보복계획(9문항), 셋째, 전위된 공격 행동(8문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된 분노반추 척도만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6이었다.

2)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본 연구에서는 Jeon, *et. al.*(1997)이 Spielberg, Krasner와 Solomon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STAX-K의 첫 번째 파트인 상태 및 특성 분노의 10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그리고 분노통제(Anger Control) 중 분노억제만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 척도는 8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이다. 이 중 분노억제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3) 재발 경고 증상 척도(Advance Warning of Relapse Questionnaire: AWAR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Chae & Oh(2006)와 Lowman & Miller (1995)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성별에 따라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측정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을 20대~30대(n=17), 40대~50대(n=68), 60대~70(n=25)대로 구분한 후 실시한 ANOVA 분석에서도 연령에 따른 측정 변수들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측정 변수인 분노반추, 분노억제, 재발경고증상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85를 넘지 않았다(.85이상이면 다중공선성 존재).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되는 분산팽창지수(VIF)가 1.359~1.497로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668~0.736으로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3.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분노반추가 재발경고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분노억제가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2>에 제시한 것처럼 Hayes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가 재발경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분노반추는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beta=.534, p<.001$)을 미쳤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한 영향($\beta=.576, p<.001$)을 주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분노반추가 알코올 재발경고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였고, 분노반추($\beta=.379, p<.001$)와 분노억제($\beta=.268, p<.001$)의 영향력 모두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Table 1.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Mean(SD) (n=110)	Male (n=95)	Female (n=15)	t (p)
Anger-Rumination	30.15(1.24)	30.27(1.39)	29.33(2.30)	0.26 (.79)
Anger-In coping style	15.21(0.48)	15.22(0.53)	15.13(1.09)	0.62 (.95)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1.05(2.31)	72.02(2.48)	64.87(6.32)	1.06 (.29)

Table 2. Correlations among anger-rumination,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Variables	1 (p-value)	2 (p-value)	3 (p-value)
1. Anger-Rumination	-		
2. Anger-In coping style	.58 (p<.001)	-	
3. Warning symptoms of relapse	.53 (p<.001)	.49 (p<.001)	-

Table 3. Mediating effect of anger-in coping style between anger-rumination and warning of relapse

Step	Model	B	β	Adj. R^2	F (p)
1	Anger-Rumination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992	.534	.278	43.070 ($p < .001$)
2	Anger-Rumination → Anger-In coping style	.224	.576	.326	53.679 ($p < .001$)
3	Anger-Rumination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05	.379	.321	26.723 ($p < .001$)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81	.268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Anger-Rumination → Anger-In coping styl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2870	.1269	.0483	.5582

는 것으로 드러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0483~0.5558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가 분노표현 방식 중 분노억제를 매개로 재발경고증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노반추가 재발경고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분노억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이는 반추가 감정을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행동적 회피를 부추긴다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로(Kim, 2010; Giorgio, *et al.*, 2010) 분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특성은 분노 표현 방식 중 분노 억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이 회피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기제는 알코올사용의 원인을 설명할 때 흔히 이용되는 스트레스대처이론(Cooper, *et al.*, 1992)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즉, 알코올은 스트레스로 발생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자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를 나름대로 다루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이때도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다루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알코올 섭

취는 그 순간을 망각하고자 하는 바램을 통해 촉진되는 회피 행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전 연구들의 경우 반추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였으며, 회피행동, 우울과의 관계에 치중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알코올 사용 환자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 분노반추를 주요한 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인 분노를 분노반추라는 인지적 요소로 세분화하였으며, 이러한 인지적 특성이 실질적인 재발경고 증상 및 회피행동의 일종인 분노억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감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 벗어나 분노 상황과 자극을 반추하는 인지적 특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20년이 넘도록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노 감정을 유발하는 사고를 파악하고 단순히 이를 논박하여 수정하거나 긍정적인 자기 진술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분노 감정 자체를 조절하고자 해 온 인지행동치료를 넘어 분노를 곱씹어 생각하는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추가 분석 결과, 분노반추 및 재발경고증상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분노표출 및 상황에 맞게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분노통제라는 분노 표현방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알코올 사용을 회피행동의 일환으로 본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관성을 보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추를 회피행동을 촉발시키는 회피 기제의 일환을 본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재발경고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노반추적인 특성을 치료 장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분노 표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여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한다면 재발률을 낮추는 데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사용 환자로 현재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 증상간에는 분노억제와 같은 분노표현방식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변수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을 적용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재발경고증상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재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재발경고증상이 높다고 하여 명확하게 재발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재발 위험을 척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 재발한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Brown, S. A. 1985. Expectancies Versus Background in the Prediction of College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1): 123-130.

Brown, S. A., M. S. Goldman, A. Inn, and L. R. Anderson.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Brown, S. A., P. W. Vik, T. L. Patterson, I. Grant, and M. A. Schuckit. 1995. Stress, Vulnerability and Adult Alcohol Relap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5): 538-545.

Chae, Sook Hee and Soo Sung O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Variables and Relapse Possibility into Alcohol Dependenc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6(2): 179-192.

Chon, Kyum Koom, Doug Woong Han, Chang Ho Lee, and C. D. Spielberger.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 60-78.

Colder, C. R. and L. Chassin. 1993. The Stress and Negative Affect Model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ehavioral Undercontro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3): 326-333.

Cooper, M. L., M. Russell, J. B. Skinner, M. L. Frone, and P. Mudar. 1992.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139-152.

Cribb, G., M. Moulds, and S. Carte. 2006. Rumin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Depression. *Behavior Change*. 23(3): 165-176.

Denson, T. F., W. C. Pederson, and N. Miller.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031-1051.

Finny, J. and R. H. Moos. 1991. The Long-term Course of Treated Alcoholism: Morality, Relapse, and Remission Rates and Comparisons with Community Control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1): 44-53.

Giorgio, J. M., J. Sanflippo, E. Kleiman, D. Reilly, R. E. Bender, C. A. Wagner, R. T. Liu, and L. B. Alloy. 2010. An Experiential Avoidance Conceptualization of Depressive Rumination: Three Tests of th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8(10): 1021-1031.

Han, Kwi Won., Myung Jung Kim, Sung Gon Kim, and Won

- Tan Byun. 1996. Conditioned Stimuli Provoking Alcohol Craving in the Alcoholics.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4): 809-819.
- Kim, Hee Young and Chong Nak Son. 2013. Effect Comparison of the Stress Management Program According to Personality Traits of Problem Drinkers: Antisocial Personality Trait and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rai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1): 1-16.
- Kim, Hwan. 2010. The Effect of Dysfunctional Self-focus Attributes on Rumination and Depressio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ong Sung. 1999. 1-year Follow-up of Alcohol Dependents after Discharge for Abstinence Results. *Chungnam Medical Journal*. 26(2): 159-166.
- Lee, Ha Na. 200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laced Aggression Group.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Sol Gi, and Jin Yeul Le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eaning of Life of Alcohol Use Disorder Patients. *Journal of Public Society*. 9(2): 83-111.
- Moon, Sung Sil, Gil Sook Kim, and Dong Yul Oh. 1999. Anger Aspect and Effect of Anger on Alcohol Drinking Pattern in Alcohol Dependence Pati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3(1): 52-58.
- Nolen-Hoeksema, S. and Z. A. Harrell. 2002. Rumination, Depression, and Alcohol Use: Tests of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6(1): 391-403.
- Nolen-Hoeksema, S., B. E. Wisco, and S. Lyubomirsky. 2008. Rethinking Rumina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5): 400-424.
- Oetting, E. R., R. C. Swaim, R. W. Edwards, and F. Beauvais. 1989. Indian and Anglo Adolescent Alcohol Use and Emotional Distress: Path Model. *American Journal of Drug Alcohol Abuse*. 15(2): 153-172.
- Reeve, Kristen L., Catherine J. Shumaker, Edilma L. Yearwood, Nancy A. Crowell, and Joan B. Riley. 2013.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33(4): 419-424.
- Song, Mi Kyoung. 2013. The Influence of Anger, Alienation on Alcohol Addiction, and Internet Addiction: Behavioral Activation as Mediator. *Forum for Youth Culture*. 36(1): 60-83.
- Speilberger, C. D., S. S. Krasner, and E. P. Solomon. 199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ew York: Springer Verlag. 89-108.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종성. 1999.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퇴원 후 1년간의 단주 성적 및 재발에 대한 추적 결과. *충남의대잡지*. 26(2): 159-166.
- 김환. 2010. 자기 초점의 역기능적 속성이 반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희영, 손정락. 2013. 문제음주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반사회성 성격특성과 수동공격성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16.
- 문성실, 김길숙, 오동열. 1999. 알코올의존 환자의 분노 양상과 분노가 음주 형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독정신의학회지*. 3(1): 52-58.
- 이슬지, 이진열. 2019.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공사회연구*. 9(2): 83-111.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C. D. Spei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채숙희, 오수성. 2006. 역기능적 태도, 음주기대, 음주축진신념과 알코올 의존 재발 가능성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6(2): 179-192.
-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알코올의존환자에서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조건화 자극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4): 809-819.

알코올 사용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위험성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알코올 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분노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알코올 재발경고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들을 재발에 이르게 하는 분노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코올중독 치료 현장에서 맞춤형 치료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t-검증, 변량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분노반추, 분노억제, 재발경고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알코올사용 환자의 분노반추와 재발경고증상과의 관계를 분노억제가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알코올 사용 환자, 분노반추, 분노억제, 재발경고증상, 매개효과

Profiles **Yun Hee Choi** : She completed a doctorate in clinical psychology courses in 2016. She has been working as a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since 2002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n addiction therapist in an alcoholism treatment hospital (clara20082@nate.com).

Hae Sook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t Honam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9.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linical psychology & mental health(2015154@honam.ac.kr).